

## 주요 내용

### ■ ASEAN + 3개국 정상회의 평가와 시사점 ■

#### □ 주요 합의 내용

- (한, 중, 일 정상회담) 중국의 WTO 가입 이익 극대화 등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함
- (ASEAN + 3국 정상회의) 동아시아 지역의 기업 협의회, 업종별 민간 협의회 창설과 자본 이동 감시 등 통화·금융 협력 강화에 합의함
- (ASEAN 회의) 역내 관세 철폐 일정을 2010년으로 5년 앞당김. 2000년부터 역내 교역품목의 90%에 적용되는 관세를 5% 이하로 하기로 함

#### □ 평가 및 시사점

- (한, 중, 일 경제협력의 내실화) 과거 한, 일간에 진행되던 한, 중, 일 협력 방안 연구가 3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게 됨
- (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추진) 한, 중, 일 협력은, 현안인 뉴라운드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여 투자협정, 자유무역협정 등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
- (ASEAN 지역 투자 증대 필요) 최근 이 지역의 경기 회복 가시화, 역내 관세 인하, 민간 협력 증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
## ASEAN + 3개국 정상회의 평가와 시사점

김 용 복

### 경과

- ASEAN + 한,중,일 정상회의의 개최
  -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ASEAN(동남아시아 국가연합) 회의와 함께 ASEAN+ 한,중,일 정상회의가 개최됨
  - ASEAN + 한,중,일 정상회의는 ASEAN 10개 회원국(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)이 한국, 일본, 중국 3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회의임
  - 한, 중, 일 3개국은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은 없으나, 지역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
- 한, 중, 일 정상회담의 개최
  - 이번 ASEAN 회의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이 회의에 참여한 한, 중, 일 3개국 정상간에 처음으로 공동 정상 회담이 개최(11월 28일) 되었다는 점임
  - 한, 중, 일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정상 회담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끄

### 주요 합의 사항

- 한, 중, 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함
  - 김대중 한국 대통령, 주룽지 중국 총리, 오부치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
  - 공동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공동 이익 극대화 방안과 함께 통상, 관세, 금융, 해양, 산업기술,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
- ASEAN +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'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'을 발표

---

## 합

- 처음으로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업 협의회, 업종별 민간 협의회(정보통신, 관광, 자동차, 전자·전기, 기계, 석유화학, 섬유, 건설, 문화산업, 금융 분야 등 10개)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,
  - 역내 자본이동을 감시하고,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메카니즘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·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- ASEAN 회의에서는 관세 철폐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
- ASEAN 회의에서는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브루나이 등 6개국은 당초 예정보다 5년 앞당겨 2010년부터, 기타 4개국은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긴 2015년부터 역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함
  - 역내 관세 철폐는 인구 5억 이상의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며,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
  - 우선 2000년 1월 1일부터 역내 교역품목의 90%에 적용되는 관세를 5% 이하로 축소하기로 함

## 평가 및 전망

- 한, 중, 일 경제협력체제 구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
- 한, 중, 일 경제협력은 작년 10월 말의 한·일 재계회의와 12월 초의 한·일 기업 경영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자유무역지대(FTA)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
  - 이번 한, 중, 일 합의로 연구의 주체가 한, 일 양자에서 한, 중, 일 3자로 확대됨으로써 협력 대상국과 경제협력 방안 연구 수행국이 일치하게 되었고,
  - 더욱이 이번 합의는 구체적이고, 실천력이 높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 그것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등에서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임
  - 한, 중, 일 협력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될 경우 3국간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.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 현실에서 동북 아시아 지역에 경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

---

들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3국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

- **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**

- ASEAN + 3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통화·금융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는 미국에 의해 창설이 좌절된 '아시아 통화 기금(AFC)'에 준하는 역할, 즉 아시아 금융 위기의 사전 방지와 위기사 공동 대처를 밝힌 것으로 아시아권을 금융면에서 하나로 묶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
- 특히 기업 협의회, 업종별 민간 협의회 창설 합의는 민간 부문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
-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전개 방향은 ASEAN과 한, 중, 일이 각각 지역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상호간에 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

**시사점**

- **한, 중, 일 동북아 경제공동체 점진적 추진**

- 이번 한, 중, 일 경제협력 합의는 그간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으로 어려웠던 한, 중, 일간 공동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
- 한국으로서는 국제수지 적자 확대, 관련 산업의 도태가 우려되는 한, 일간 협력보다는 산업구조의 보완적 성격이 강한 한, 중, 일 협력 추진이 더욱 유리하므로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임
- 현안이 되고 있는 뉴라운드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으로부터 시작하여 투자협정의 체결, FTA의 추진, 궁극적으로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- **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 필요**

- 아세안은 우리의 제 4위 교역시장(98년 교역량 244억 달러)이자, 제 2의 흑자 시장(98년 64억 달러)임. 또한 제 2의 건설 시장(98년까지 누계 295억 달러)이고, 제 3의 투자 시장(98년까지 누계 58억 달러)임
- 최근 아세안 지역의 경기 회복과 역내 관세 인하, 민간 협력의 증대 등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

(ybkim@hri.co.kr ☎ 724-4032)